



## UN GCF (Green Climate Fund) 유엔 녹색기후기금

급격한 기후변화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인류,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 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데,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UN GCF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UN GCF는 기후변화 재원체계를 총괄하는 환경 분야의 World Bank로, 향후 10년간 약 800조원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독일, 멕시코, 나미비아, 폴란드, 스위스가 UN GCF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UN GCF 유치후보도시, 인천

2011년 11월,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GCF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인천시를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치도시로 결정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동북아시아 경제, 물류, 무역의 거점도시로 비행거리 3시간 안에 인구 100만도시가 61개로 20억명을 만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과 관광·레저, IT·BT산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경제수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Compact & Smart City 송도국제도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9년 세계환경포럼」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친환경 미래 첨단도시를 알기 위하여 송도 국제도시를 봐야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CNN은 송도국제도시를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로 10회 이상 방영하였으며, Wall Street Journal과 Discovery는 송도국제도시의 건축물을 '에너지와 환경디자인의 표본'이라 하였습니다.

저탄소·친환경 도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UN GCF의 설립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012년 9월 UN기구 전용 빌딩인 I-Tower가 완공되면, GCF를 비롯한 UN ESCAP, UN APCICT, UN ISDR 등 UN 기구가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기구 근무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등 제반 인프라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생활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자전거 타기 생활화, 주변 환경 정비하기, 외국인에게 친절하기

인천  
songdo

UN GCF(Green Climate Fund)



## UN GCF (Green Climate Fund) 인천송도유치

### UN GCF 유치 향후 일정

- 2012 5월중  
GCF 인천유치 범시민 자원위원회 발족
- 5.31 ~ 6.2  
GCF 1차 이사회(스위스 제네바)
- 8.22 ~ 8.25  
GCF 2차 이사회  
(대한민국 인천 송도)
- 11.26 ~ 12.7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카타르 도하)  
- GCF 유치국가 최종 확정
- 2013  
GCF 사무국 출범

ifez

UN GCF



UN 녹색기후기금 (GCF)  
인천송도유치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UN GCF(Green Climate Fund) 인천송도유치

### UN GCF가 유치되면 좋은 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GCF가 국내로 유치될 경우 주재원의 소비, 국제회의의 개최,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효과 등을 통해 연간 약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IDI)은 인천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연간 1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유치는 국격을 높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녹색금융, 녹색기술산업, 녹색제품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어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N GCF가 세계 환경개선을 총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 좋은 변화를 준다는 점입니다.

### UN GCF 유치에 힘을 모아 주세요!

현재 GCF 사무국 유치국가 선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파격적인 유치조건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범 정부차원의 유치단을 구성하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인천의 의지와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합니다. 국민이 곧 힘입니다!"